

신한속속 191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7
07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2017 신한 경원선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Issue 2 - 제3회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오세창 동두천시장
-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신한대 축제 · 체전 도담제
- 신한인 3人

신한대 최고 유아교육과
지구촌 도우미 로고스봉사지원단
캠퍼스 벽화사업 실시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7.07.24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은영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 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신한 The 쎬세이션
- 04_통일 한국의 중심 신한
- 06_신한 경원선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 12_제3회 K-POP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 18_SHINHAN University Vision
- 20_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 24_오세창 동두천시장
- 28_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32_신한대 축제·체전 도담제
- 36_신한인 3人
- 40_신한대 최고 유아교육과
- 42_지구촌 도우미 로고스봉사지원단
- 44_캠퍼스 변화사업 실시
- 48_Super-Star 노영학
- 52_이모저모
- 56_대학발전기금
- 58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7 수시모집 3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 The 썬세이션! 경원선 통일을 위한 복원, 신한이 이어낸다

Best University

- 2017 신한대학교 축제 '도담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의 변신! 그래피티

Global University

- 제3회 K-POP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 김동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인터뷰
- Do Dream! 오세창 동두천시장 인터뷰

Student's Power

- 2017 신한대학교 축제 '도담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 신한대학교 최고학과, 유아교육과 선정
-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3학년, 배우 노영학을 만나다

통일 한국의 중심 신한! 신한대학교, 통일로 향하는 길의 침병이 되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던 두 대학, 신홍대학교와 한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설립된 신한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경기북부의 중심대학으로 그위상을 확립해 왔다. 이어 접적지역 최대의 대학으로 통일에 대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번엔 이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스포츠 이벤트를 마련해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도를 따라 발달한 도시인 의정부와 동두천은 서울에서 북쪽을 향해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며, 그렇기에 위치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이다. 두 개의 캠퍼스를 통해 각 도시를 대표하는 신한대는, 2014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저명한 국내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문제 싱크탱크인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를 설립해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평화통일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을 출범시켜 경계문제를 통한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등, 국내대학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통일연구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창립 후 2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와 동두천을 관통하는 경원선은 통일 뒤 북한의 요충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철도이다. 그리고 분단 뒤 반으로 끊어져 버린 이 철도를 다시 잇는다면, 지리 여건상 의정부와 동두천 두 도시가 중요한 화물기지로써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은 언제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신한대학교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그간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꾀해왔다. 통일 한국의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의 교육 허브로서, 미리 그 날을 준비해온 신한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자.

〈박현규 기자〉





2017 신한경원선 국제 평화 마라톤대회

통일 염원 가슴에 담고 달렸다

통일 한국의 중심 신한대학교
2017 신한 경원선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창설

비극의 날 6월 25일 송내동(동두천시 차 없는 거리) - 한탄대교 사거리 코스 1,000여명 참가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마라톤

경기북부의 중심대학으로 통일문제연구와 북방지역 협력확대로 통일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신한대학교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제 마라톤대회를 창설, 6.25전쟁 발발 67주년인 6월 25일 첫 대회를 개최했다. 국토 분단으로 의정부에서 신탄리까지 운행되는 운행되는 경원선이 통일을 통해 남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열린 2017 신한 경원선 국제평화 마라톤대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동두천, 연천지역이 포함된 코스에서 열려 분단 77년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에 불을 당겼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통일'과 '국제 평화'의 가치를 들고 열린 이날 레이스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화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주목을 끌었다. 레이스는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예총북부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군·관·민·외국인 더불어 레이스... '비극은 없다' 통일염원 가슴에 새겨

단축마라톤으로 열린 2017 신한 경원선 국제 평화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 송내동(동두천시 차 없는 거리)을 출발해 한탄대교 사거리 까지 6.25km, 8km, 하프 마라톤 등 3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6.25km 반환점은 보산역, 8km반환점은 동두천역 인근, 하프마라톤 반환점은 한탄대교 사거리였다.

레이스에는 다문화 가족, 동두천과 연천지역 주민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고 6.25전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국 각지의 군·관·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개인과 가족 1,000여 명이 출전해 경쟁이 아닌 완주를 목표로 삼는 축제성격의 대회로 치러졌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이 증정되었고 스포츠레이핑, 체력측정, 운동처방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 간식이 제공되는 한편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과 스포츠용품이 주어졌다. 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유보선 신한대 부총장)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역의료센터와 협조하고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코스의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경기종료 후 각 코스별 남녀 1~5위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으며 경기 전에는 부대행사로 심폐소생술 시범, 페이스페인팅 등 거리나눔 아티스트를 운영하고 경기종료 후에는 밀키웨이 등 일렉트릭 밴드 초청공연도 열려 축제분위를 북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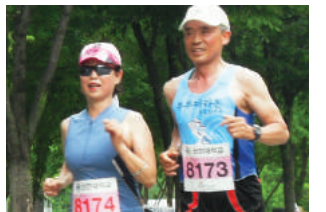


단순한 마라톤, 그 이상을...

경기북부지역 유일한 종합대학인 신한대가 창설한 이번 대회는 치열한 6.25전쟁의 중심이었던 경기북부지역에서 열리는 평화염원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 더해, 경기북부 중심도시 동두천과 '통일한국 심장' 연천군이 대학과 손잡고 통일을 바라는 이벤트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한 시민행복 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과 동두천, 연천군 시민이 함께하는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신한대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등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접적지역인 대학과 연계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평화이벤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평화통일의 싱크탱크 신한대의 또 하나의 통일 이벤트

기독교정신을 건립이념으로 설립된 신한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면서 경기북부의 중심 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확립했다. 또한 접적지역 최대의 대학으로 통일에 대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번에 이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스포츠 이벤트로 승화시켜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한대는 2014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저명한 국내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문제 싱크탱크인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를 설립해 강의와 연구, 평화통일지도자 양성 등 통일에 대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을 출범시켜 경계문제를 통해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등 국내대학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통일연구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창립 후 2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한대학교는 통일에 대비해 동북아시아지역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가깝게는 몽골, 중국과 협력관계를 넓히고 러시아를 포함해 동유럽지역으로 교류를 넓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마라톤대회 창설은 경기북부지역과 신한대학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신한대학교의 전략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박현규 기자〉



K-POP 신한류

Music Festival

신한대 주최
제3회 K-POP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에
열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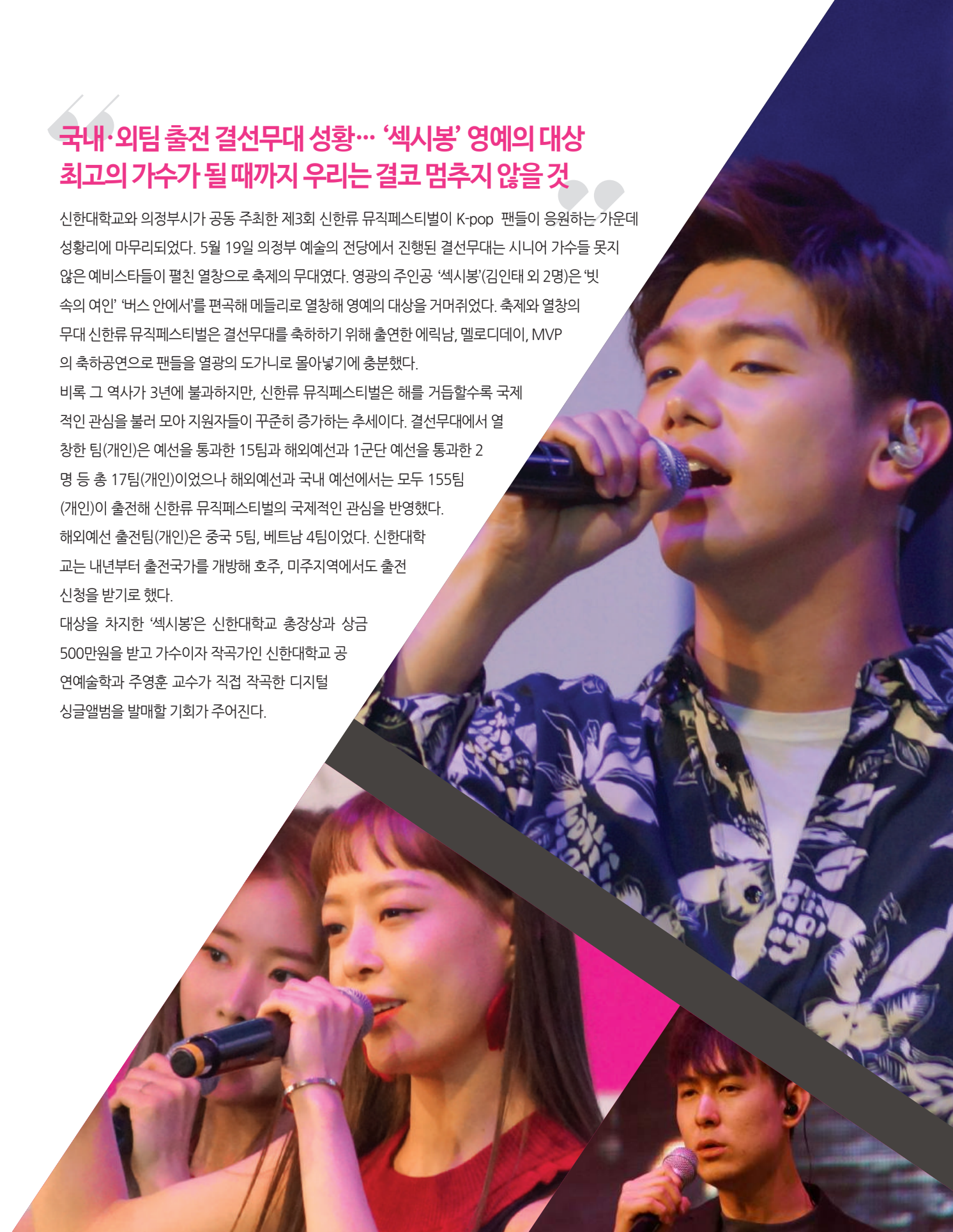


국내·외팀 출전 결선무대 성황... '섹시봉' 영예의 대상 최고의 가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신한대학교와 의정부시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이 K-pop 팬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5월 19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결선무대는 시니어 가수들 못지 않은 예비스타들이 펼친 열창으로 축제의 무대였다. 영광의 주인공 '섹시봉'(김인태 외 2명)은 '빛 속의 여인' '버스 안에서'를 편곡해 메들리로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축제와 열창의 무대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은 결선무대를 축하하기 위해 출연한 에릭남, 멜로디데이, MVP의 축하공연으로 팬들을 영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비록 그 역사가 3년에 불과하지만,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아 지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선무대에서 열창한 팀(개인)은 예선을 통과한 15팀과 해외예선과 1군단 예선을 통과한 2명 등 총 17팀(개인)이었으나 해외예선과 국내 예선에서는 모두 155팀(개인)이 출전해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의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해외예선 출전팀(개인)은 중국 5팀, 베트남 4팀이었다. 신한대학교는 내년부터 출전국가를 개방해 호주, 미주지역에서도 출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을 차지한 '섹시봉'은 신한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고 가수이자 작곡가인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주영훈 교수가 직접 작곡한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박우혁 외 9명으로 구성된 '동아북이'는 거북이의 '비행기'를 불러 금상을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리듬파워의 '호랑나비'를 부른 'RED(박유정 외 10명)'는 은상,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부른 'Ariel(김소현 외 3인)'은 동상을 수상해 각각 상금 150만원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남진의 '나야나'를 열창한 '김돌풍'은 특별상을 수상해 상금 50만원을 받았으며, 특별출연상은 조수미의 '나가거든'을 부른 '리엔', 크러쉬의 'hug me'를 부른 문지수 상병이 수상하여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시와 함께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을 K-POP 최고의 대회로 발전시키고 의정부를 'K-pop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한대학교가 자랑하는 공연예술학과를 중심으로 실용음악 발전을 통해 팬들이 주목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은 예비스타의 경연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으며 기성 뮤지션들이 주목하는 대회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특히 경기북부의 중심대학인 신한대학이 음악을 통해 지역문화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섹시봉'은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 나의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훌륭한 K-pop 가수가 될 것을 다짐했다.



제3회
K-POP 신한류
Music Festival영예의 대상
Sekssibong
Interview

Q. 팀을 소개해 주세요!

‘섹시봉’의 뜻은 저음, 중저음, 고음 세 가지 음역대에서 각자가 제일 섹시한 부분을 노래한다는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Q. 대상을 수상한 소감이 어떤가요?

초등학교 이후로 큰 상을 처음 받아봤어요. 저희는 정말 수상할 줄 몰라서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에게는 과분한 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음악 성향도 비슷하고, 음악적 색깔도 뚜렷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 음악 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계획은?

저희는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가수 ‘섹시봉’이 되는 그 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정, 오소영 기자〉





Talent Identity

New Start

4S Power

Shinhan University Vision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열정과 유머를 갖춘 경기도의 일꾼

김 / 동 / 군

행정2부지사를 만나다

01
INTERVIEW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신한대학교, 더 나아가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본 지는 가장 잘 알법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바로, 김동군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하 김동군 경기도부지사)다.

김동군 경기도부지사의 발자취는 기사를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실업계인 의정부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례적으로 인문계인 성균관 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그 뒤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지역개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아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거기에 더불어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경기도의 여러 관공 부처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사람. 이런 사

람이라면, 당연히 엄격하고 근엄한, 냉철한 공직자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본 기자에게는 다행으로, 직접 만난 김동군 경기도부지사는 권위적인 모습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남자였다.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는 별도의 접견실이 아닌 김동군 경기도부지사의 집무실에서 바로 진행되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인지 답답한 슈트 윗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기자들을 맞이한 그는,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격의 없이 기자들을 맞이해 주었다.

Q _____ 공직에 선다는 것은 곧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는 뜻인데,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하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던 암행어사 같은 정의로운 관료들이 탐관오리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했다. 그때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본격적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행정학도가 되어 학식을 쌓아가며 행정이란 무엇인지, 공직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하고 또 고민했다. 무엇보다, '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고민했다. 그 마음가짐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Q _____ 공직에 오른 뒤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이 있는가?

경기북부는 통일 이후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곳이며, 미군 반환

공여지나 DMZ 등 넓은 개발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임기 동안 경제·산업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경기북부의 특성에 걸맞는 분야를 활성화시켜 균형잡힌 발전을 꾀할 생각이다. 예컨대,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 및 가구 사업에 디자인과 한류를 접목시킨 K-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을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디자인문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1조 6,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1,900여 개의 기업 유치, 1만 8,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Q _____ 통일 이후 경기북부가 남북 교류의 물류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시에 남북 관계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동시에, 남북 분단과 대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

던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 북서부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북동부의 경원선은 남북 간 경제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적 가치가 풍부하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한 철도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권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구상을 밝혔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이자 냉전을 극복한 평화협력의 공간, 미래 통일한국의 중핵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개발 잠재력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앞날에 대해 말하는 김동군 경기도부지사의 표정과 말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충분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할 것이며, 그럴 각오도 되어 있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였다.

Q _____ **경기북부의 교육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신한대학교에 바라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신한대학교는 그간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건학 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지역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그간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학문의 새 지평을 열어왔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리적/물적/인적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보고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선도 지역이다. 그러나 그간 '규제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는 신성장 동력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한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신한대가 낳은 유망 인재들이 경기북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신한대가 손을 모아 경기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꾀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

Q _____ **일자리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학생시절이나 공직생활 중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면 소위 말하는 '노땅'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다(웃음). 그래도 말해보자면, 우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직관력을 믿고, 한계까지 자신을 밀고 가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라. 나의 경우에는, '열정'과 '유머'가 그것이었다. 열정은 참 많은 것을 이루게 해준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그렇다. 예컨대, 나는 해외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그 지역의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본다. 그러면 자연스레 왜 그들이 그런 문화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는 상대를 이해하

고 존중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의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습관을 더럽다며 기피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차례 새로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할 시기이다. 새로운 것, 그리고 혁신은 세상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미래를 바꿀 고민과 상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 진다. 그것을 위하여, 매사를 열정적으로 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을 찾아내고, 그것에 열정적으로 달려들어라. 부딪히고, 체험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힘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그의 말 사이사이에는 유머가 섞여 있었다.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여유를 가지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유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Q _____ **자신의 진로로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선배로서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거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직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공무원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영달에 앞서 사회의 공공선을 우선시 해야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꿈을 꾸기에 앞서 공무원이란 무엇인지, 공무원으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는 바람직한 공무원이라면 응당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공무원 현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

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떠한 혼란과 피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부디, 공직자로서의 '나'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고, 이를 마음 깊이 새겨 훗날 공직에 올랐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Q _____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현재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민생안정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도민들을 위한 협치協治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라 하며 연정에 회의를 품기도 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경쟁과 싸움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다름 아닌 청년들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간 적이 없는 길이라 하여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 길이 옳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증명해 보일 첫 세대이다. 여러분들도 경기도의 첫 연정 실험이 그랬듯이 편견과 회의, 심지어는 비난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그 어느때보다도 서로의 손을 잡고 뭉쳐야 한다. 무한 경쟁주의의 과도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각자의 꿈을 모아 하나의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지쳐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동근 경기도부지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뷰를 위해 개인의 휴식 시간까지 할애한 탓이었다. 정무를 처리하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 공직자라면 바로 저러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록 좀 더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인터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바쁜 와중에 어떻게든 인터뷰 할 시간을 내어 준 김동근 경기도부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박현규 기자〉



02 INTERVIEW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오 / 세 / 창 동두천 시장을 만나다

지난달 지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한 도시 동두천에 찾아가 오세창 시장을 만나 보았다. 1974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2007년에 16대 동두천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현재 까지 동두천의 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동두천의 기둥이 되어준 그의 업적과 목표를 인터뷰를 통해 담아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시장님. 신한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한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66년간 미군이 주둔하는 도시면서 공여구역이 반환되면서 1,200만평의 개발 가능지를 보유하게 되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동두천시의 시장을 맡아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희망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핵심적으로 추구한 일은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에 준공한 '두드림 패션센터'는 총 40여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봉제교육을 받은 지역주민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LNG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LNG 복합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광암동 일대에 1,3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즉,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Q.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산동에 K-rock 빌리지 사업을 진행해 음악 관광명소를 만들 생각하고, 이어 올해부터 두드림 뮤직센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피티, 아프, 스토리텔링 제작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50~60년대를 추억 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인구밀집도시로 재창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 사업에 현재 19개 종류의 공방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여 문화특구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Q. 지자체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동두천시만의 복지서비스는 무엇이었나요?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천사운동본부는 2002년에 처음 만들어져 현재는 고양, 용인, 양주, 안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천사운동본부를 통해 빈곤 가정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무의탁·독거노인, 긴급한 수술비가 필요한 이웃이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복지 뿐 아니라 해외 도시와의 교류에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국제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동두천시는 자매 및 우호도시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매도시로는 중국 하남성 쑤먼샤시와 베트남 빈롱성의 빈롱시와 교류하고 있고 미국 미시건주 사우스필드시, 일본 시즈오카현 시마다시와는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맺고있는 도시

와는 매년 상호 청소년들의 방문을 통해 양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Q. 동두천시와 오세창 시장님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시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3선 시장으로서 이제 1년의 재임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의 변화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 동두천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동두천은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남은 1년 동안 동두천시가 희망과 비전이 있는 도시임을 증명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Do Dream

시민에 대한 고민을 끊이지 않는 그의 모습이 든든해보였다. 웃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두천시의 시민들이 3선이라는 긴 재임기간을 왜 그에게 맡겼는지 알 수 있었다. 남은 재임기간동안 그가 노력하고 있는 사업과 목표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라게 되었다. 동두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오길 바라본다.

〈박은영 기자〉



HOT
ISSUE 1의정부
영상미디어 센터 개관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시대가 바뀌고 있다. 지역 사회의 결속력과 소통이 중요해 지고 있고, 미디어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점차 창의력과 창조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역설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지난 4월 6일 의정부시의 주관 하에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되었다. 개관식에는 의정부 안병용 시장, 시의회 박중철 의장, 신한대학교 김병욱 총장, 경기도 의회 김원기·박순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영상과 미디어는 현대인의 상호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학이 협력하여 미디어센터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강조했다.

의정부 최고의 시설을 보유한 미디어센터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응모·당선되어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총 16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신한대학교의 협조로 도서관 1층 공간에 747㎡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공간을 설치하고 에벤에셀관 지하 1층에 199㎡의 최신식 영상, 음향 장비를 갖춘 상영관을 구축했다.

특히,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공간에는 최신식 장비를 구비한 영상 스튜디오와 라디오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을 제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SHINHAN UNIVERSITY

학교시설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신한대학교 입장에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학과, 디자인학부, IT융합공학부, 공연예술학과 등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얻고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동아리, 클럽, 소모임 활성화도 기대된다. 학교 측은, 학생과 시민이 함께 할 경우 스토리텔링, 사진촬영, 영상촬영, 동아리 영상제작,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한 영상미디어 관련 봉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을 계기로 관련 학과 교수와 직원의 재능 기부를 유도하고, 관련 학과의 연계를 통해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한대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의정부시 1인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미디어센터를 연계하여 영상미디어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미디어와 지역사회

신한대학교 도서관 건물을 개축하여 만들어진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과 미디어야말로 현대사회의 소통에 필요한 기본 요소이며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이념 하에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 두 기관의 뜻이 모아져 세워진 시설이다. 이러한 설립 이념에 걸맞게,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에게 영상미디어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센터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미디어센터 측은, 영상미디어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영상미디어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어 지역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 제공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참여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개중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과 시민을 위한 행복 영화관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영상미디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미디어체험관은 유년기의 진로설정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과 미디어가 결합하는 형태의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 친화적인 사업인 '의정부 지역 영상미디어 문화콘텐츠 사업'을 병행한다.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부담없는 참여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영상미디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에 대한 미디어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과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한 장비 및 공간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 제도는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리된다. 일반 회원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시간여에 달하는 정회원 교육 수강을 받아야 하며, 이후 관리자의 별도 승인을 통해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정회원 자격은 1년간 유지되며, 연회비 1만원이 필요하다.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차이는 장비 및 시설의 대여 가능 여부에 있다. 특히 장비 및 공간 대여 사업은 고가의 미디어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줌으로서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대여료는 디지털 카메라(EOS 5D Mark III) 20,000원 등 최소 2,000원에서 최대 20,000원까지로, 이동식 스크린 등 미디어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사적으로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의 17개 품목, 27종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장비 및 시설의 대여/반납 시간은 평일 10:00~21:00, 주말 10:00~17:00이며,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현규 기자〉



HOT ISSUE 2

신한대학교 축제·체전 도담제

우리 이만큼 컸어요! 성장한 우리의 모습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신한대학교 축제 '도담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축제 이름에 모티브가 된 순우리말 '도담도담'은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놀며 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쁘고 뜻 좋은 이 이름은 대의원회가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신한대 학생의 아이디어로 정해졌다고 한다. '도담제'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과제나 학점 등 고민거리를 잠시 내려두고 어린이처럼 해맑게 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신한대학교 학생들은 축제이름에 걸맞게 탈 없이 잘 즐겨주었다. 신한대학교의 학생과 교수, 학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민이 도담제에서 교류하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축제의 첫날인 24일 오후 3시 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도담제는 오후 4시부터 공연예술학과 K-pop과 댄스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에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로 장식됐다.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공연은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답게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여 관중들의 인상에 남았다. 이어서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림보와 만보기 게임이 진행됐다. 오후 6시에는 유명힙합가수 '기리보이'가 무대에 올라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공연을 선보였다.



기리보이는 무대를 지켜보는 신한대학생들에게 능숙한 무대매너를 보이며 순서를 마무리했다. 연예인 공연의 첫 순서가 끝난 후 신한대학교 방송국 S.E.B.S의 청춘가요제가 진행됐다.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으로 이뤄진 청춘가요제는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는 신한대학교 방송국 S.E.B.S의 신수경, 강주연 학생이 2부에는 방송국장 최란, 임지원학생이 수고해 주었다. 심사와 시상은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윤상길 교수, 공연예술학과 이현숙 교수, 간호학과 이민선 교수가 맡았다. 청춘가요제의 1등은 최유림, 이용준 학생이 차지했다. 축제의 둘째 날인 25일은 오후 4시 40분부터 남녀학생이 짝을 이뤄 게임을 진행하는 '우리, 이런 사이야'와 일심동체 게임을 시작으로 동아리 공연이 이어졌다. '우리, 이런 사이야'는 교내커플과 동성친구, 이성친구 등 두 명의 참가자가 팀을 이뤄 참여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우정을 과시하며 여장을 하거나 재미있는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학생들에게 웃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후 7시부터는 가수 매드클라운과 샵건, 우주소녀, 버벌진트가 공연했다. 먼저 핫하게 떠오르는 신인 힙합가수 샵건의 무대에 이어 매드클라운이 무대에 올랐고 도담제는 합성으로 가득 찼다. 둘의 듀엣곡과 함께 다음순서인 매드클라운의 공연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가사를 따라 부르며 무대를 즐겼다.





SHINHAN UNIVERSITY

이어서 걸그룹 우주소녀가 무대의 자리를 넘겨받았다. 우주소녀는 신인 걸그룹만의 상큼함과 아름다움으로 신한대학교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지막 순서였던 버벌진트는 목격한 중저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마주치는 학생들과는 사진도 찍어주며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예인의 공연을 끝으로 신한대학교 도담제의 순서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신한대학교 제3대 대의원회 모모의 의장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고진영 학생은 폐막을 알리며 축제에 즐겁게 참여해준 신한대학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부스와 체육대회 결승 팀이 모여 우승을 두고 겨루는 신한대체전이 진행됐다. 부스는 학과와 단체별로 이뤄 운영됐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부스를 계획, 운영하며 학과 학생들 사이에 단합을 보여줬다. 퇴학별 밑에서도 뜨거운 불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재밌는 모습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벤트와 게임을 진행하며 대학축제의 장에서 볼 수 있는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동아리연합회 귀신의 집, 언론학과 의 론담제, 섬유소재공학과 물 풍선 터트리기 게임부스 외 21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개인단위의 부스 중에는 유일하게 외부단체와 함께하는 부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는 '연금'팀의 부스다.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연금'팀은 외부단체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부스를 운영한 이례적인 참가자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부스를 진행한 언론학과 운영수 학생은 "학교축제가 이전보다 활기가 더해졌다. 부스를 진행하는 학생과 참여하는 학생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라 더 열심히 임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스는 학업을 병행하며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도담제의 취지처럼 과제와 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하고 활기차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스 운영이 끝난 뒤에는 어느 학과도 빼놓지 않고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학교축제는 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자신들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한대학교의 도담제는 신한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출범하고 성장한 모습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축제를 즐기는 자세와 준비성도 역대 신한대학교 축제 중 최고였다. 축제를 잘 이끌어 학교를 방문한 타 학교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날씬만큼 화창한 모습만 보였으리라 생각된다. 내년에도 진행될 신한대학교 축제를 기대해본다.

〈박은영 편집장〉



HOT ISSUE 3

신한인 3人

- 이임성 변호사
- 김영성 교수
- 브랜든 뉴튼 제1시설사령관

01.

변호사에서 신평원우회 회장으로 이임성 변호사의 새로운 출발

지난 6월 4일, 신평원우회 신임회장 이임성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신평원우회는 2000년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지도자 과정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임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평원우회의 방향과 그가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 등을 알아본다.

Q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회장님 소개를 전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신평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이임성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가 과분하게도 2017년 신평원우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평원우회가 경기북부 최초 개설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Q 신임 원우회장으로서 하는 대표적인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올해는 특히 기존의 신평 산악회, 신평 골프회 등 동호회 모임에 더하여 많은 동호회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평 사랑나눔 봉사단]은 신평 외식경영자 과정 원우회와 의정부시내 20여개 지역아동센터운영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한 번씩 아동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기는 봉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 문화산책 동호회]는 매월 한 번씩 예술의 전당 공연관람, 역사기행을 주제로 한 소박한 월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 SNS기자단]은 매월 관내 원우업체 2,3곳을 탐방한 후 그 업체를 소개하는 글을 밴드,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원우들과 원우회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활동 중입니다.

Q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A 제가 그 동안 7년 남짓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약 100여 가구의 전원마을 바로 앞에 기업형 양돈업자가 10개동의 대규모 축사(돼지우리)를 주민들 몰래 추

진하다가 그곳 주민들이 건축허가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가 돈사10개동의 규모라면 단순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시행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더니 법원에서 이를 존중해서 돈사건축 허가취소의 판결을 해주었고, 그날 200여명의 주민들이 잔치까지 한 일이 기억납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 원로 건달(강패)이 경기도 어느 국가기관의 무리한 실적 올리기 수사로 인하여 '투견도박사건'으로 모함 받은 사건입니다. 그 분이 예전에는 전국구 건달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은퇴한 팔순 노인인 불과하다 는 것과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까지 적극 입증해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더니, 지금도 가끔 문안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Q 이제 곧 사법고시가 폐지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A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고사인 사법시험은 그 동안 50년간 유지되다가 올해 2017년에 드디어 폐지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로스쿨로 일원화됩니다. 그런데 요즘 법조계의 걱정거리는 사법시험 폐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법원, 검찰 및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계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가 20,000명 정도이고, 매출규모는 연간 약 3조원에 불과하여 빵집인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의 연간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1,500명의 신규 변호사가 진입하고 있으니, 이는 파리바게트 빵집이 매년 1,500개가 생겨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너무 심각한 공급과잉이므로 당분간이라도 연간 2,000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법조 인력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 변호사외에도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시던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저는 2009년 의정부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해 말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고, 그 이래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

라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특임교수도 맡아 창업 법률(회사법)과목의 강의를 수년간 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천지역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의 경영학과 겸임교수도 맡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게 대학강의가 낯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에게 제가 꽤 오랫동안 검사, 변호사의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수많은 법률실무경험을 전달하는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요즘 들어 대학생들이 유례없는 취업전쟁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모쪼록 올해는 신정부가 출범도 했으니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창업일선의 상황이 좋아져서 젊은 세대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임성 변호사는 신평원우회회장으로서 신평원우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임성 변호사가 접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그가 가진 유연한 생각이 신평원우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대해보며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임성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승은, 최수민 기자>



02.

신한대학교 김영성 교수, 식품안전 지킴이로서 유공표창 수상



식품안전 지킴이 김영성 교수(신한대학교 식품영양전공교수)가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경기도지사 유공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방송매체들을 통해서 ‘스펀지 천기누설 먹거리X파일’, ‘약이 되는 음식이야기 건강미학 코너’ 등을 통해 농·수·축산물

물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어민들의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의정부시 외식업자를 대상으로 23년 동안 식품안전성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식품정책심의위원회와 음식문화 개선위원 행정혁신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과 (사)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아 영유아와 다문화가정어린이, 노인 등 소외계층의 영양과 식품 안전에 노력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관련 칼럼의 일부이다.

〈영양소의 역습〉

최근 니나 타이솔드(Nina Teicholz)가 ‘지방의 역설(The Big fat Surprise)’이라는 저서에서 동물성지방의 섭취를 통해 만성병과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식품의 영양소에 관한 전반적인 섭취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동물의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매우 좋은 영양소라는 주장이며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소량으로 제한하면서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과학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는 최근 지방을 많이 먹는 ‘케톤 다이어트’로 이어져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본래 이 방법은 1920년 어린이 간질환자에게서 나

타나는 경연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기내과 의사인 로버트 앳킨스 박사는 이 케톤 다이어트가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앳킨스 다이어트)로 발전된 것이다.

과거,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미국인들에게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늘림으로써 지방 섭취량을 통제할 것을 지시했고, 그 대체식품의 예로 저지방 쿠키, 저지방 크래커, 하드 캔디, 껌, 설탕, 시럽, 꿀, 잼, 젤리, 마말레이드 등을 권고 한 바 있다(1995).

저자는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통해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를 유도되었고 이러한 원인으로 갖가지의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결장 직장암의 경우, 지방 섭취와의 연관성은 붉은 고기 섭취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전립선암의 경우도 붉은 살코기를 일관되게 섭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동물성 포화지방 자체의 섭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인간의 신체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보다 편리한 대사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소화가 보다 용이하고, 정제된 당의 찌르는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분리된 지방의 선택적 섭취에 이르도록 경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과 의학의 발전에 의해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나아가 인체의 대사기능의 불균형과 기능저하에 이르게 된 결과를 낳아 현대인의 대사질환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재배기법과 섭취를 유지하여야만 인류가 자연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김민지 기자〉

03.

신한 속의 미국, 제1기 인터십 프로그램 실시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욱) 학생들이 미2사단 제1시설사령부에서 제1기 인터십 프로그램(SHINHAN ENGLISH-BASED Internship Program AT AREA I, USFK)을 시작했다. 6개월 과정의 이 프로그램은 영어만 사용하며 근무함으로써 영어 직무 능력을 높이고 미국의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하게 해 진로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파견된 학생은 마케팅, 재무관리, 공보실, 기획실, 스포츠 레크레이션 센터, 실내외 활동 레크레이션 분야를 보조하게 된다. 이는 한·미 친선교류를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신한대학교와 미2사단 제1시설사령부와 협력해오던 것을 기회로, 사회에 나가게 될 젊은 학생들에게 멘토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을 전달하고, 미국인의 문화와 사회 규범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총 관리자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재미있고 국제적인 경험과 조언들을 얻게 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일반적인 미국 연방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한국의 교육법과는 다른 교육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국에 관한 경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랜든 뉴튼 제1 시설사령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런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해외 유학대신 학생들이 영어를 구사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근무 경험,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취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들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제시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고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기술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어디서든 가지지 못할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민지 기자〉

HOT ISSUE 4

신한대학교
최고 유아교육과



최우수 S등급을 받은 유아교육과

올해 4월 25일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한 2016년 교내 학과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학과 평가 심사 기준이었던 재학생 충원을 및 중도 탈락률, 강의 평가점수, 봉사활동, 취업률, 비교과 프로그램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번 학과 평가 결과에 대해 유아교육과 학과장인 김민화 교수는 “학생과 교수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과의 높은 취업률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진 계기가 되었으며 타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유아교육과에서 수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과 교수 간의 연대 의식이다. 교수들은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학

과 발전을 위해 애쓴다. 중요 학과 활동이나 행사가 끝나면 무조건 평가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고 현재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점을 도와줘야 되는지 논의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평가회에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학과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덕분에 학생들도 자신들의 전공에 대한 흔들림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 이번연도 유아교육과의 큰 자랑거리인 “재학생 중도 탈락 0%”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꾸준한 교수들의 응원과 믿음 속에 신한대

학교 유아교육과의 취업률은 교내 기준으로 최상위에 도달했다. 유아교육과는 지금보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교사의 재능 함양과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나아가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미래의 교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현장 역량을 가져야 한다. 자기 주도적 탐구역량, 지성·창의 실무역량, 교직 인성역량, 문화·예술 감수성 역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들에 대해 정규교과과 정학을 통해 배우고 있다.

〈이민영 기자〉



HOT ISSUE 5

지구촌 도우미 로고스봉사지원단

신한대 로고스봉사지원단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도우러 갑니다!

신한대학교의 로고스봉사지원단이 또 다시 몽골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러 간다. 신한대학교 소속 학생, 교수, 교직원 등 600여명에 달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로고스봉사단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라는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재능기부 활동이 그 예이다. 각 학과의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봉사단은 의정부역 인근 유흥지 경작활동, 벽화 봉사활동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해외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해왔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 미얀마 양곤, 몽골 등 오지를 찾으며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지구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로고스봉사지원단은 올해 또한 해외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6회 참! 신한 몽골해외봉사 활동이 그 계획이다. 올해로 여섯 번째로 이루어지는 '참! 신한 몽골해외봉사활동'은



함께 손길을 건네러 갈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 환경정화, 문화교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사 활동을 위해 간단한 몽골 언어회화 교육과 봉사프로그램 교육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사회봉사캠프 대장정(가칭)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대학교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경기북부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도움을 필요한 곳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취지를 담은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활동지역은 경기북부지역 4개의 시·군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2017다문화감수성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SHINHAN UNIVERSITY



신한대에서 유리함을 만나다

신한대학교 홍보팀,
제2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프로젝트 진행



신한대학교 홍보팀이 캠퍼스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을 실시한다. 이 벽화사업은 캠퍼스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단조로운 벽면에 벽화를 제작하여 포토존 형성 및 만남의 장소 등 쾌적한 캠퍼스 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의 사론관과 브니엘관을 잇는 터널 내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넣어 현재 시멘트벽과 흙먼지, 누수 발생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매우 오염되어 활용도가 현저히 적은 공간에 벽화를 통하여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지역 다문

화 센터 및 군부대의 협조와 교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로 신한대의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벽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벽화사업은 올해 2017년 4월부터 내년 2018년 2월까지로 규모는 약 432㎡ (3.2m×135m=432㎡)이다.

벽화는 제1벽과 2벽으로 나뉘어져 각각 유럽 거리의 풍경과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을 표현해 터널에 들어서면 마치 유럽의 거리 한복판에 와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자세한 계는, 길거리 예술이 넘쳐나는 유럽 곳곳의 명소들의 골목 사이사이 이색적인 상점들과 갤러리, 카페 거리 등의 유럽의 도시와,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는 카페 안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과 그 사이로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거리에서 즐겁게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 빵집과 꽃집들의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시야에 담으며 달콤한 커피와 브런치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그려 넣어 벽화에 다채로운 색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벽면에는 파리 몽마르뜨 언덕에 있는 고흐,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우디 알렌의 영화 촬영 장소였던 르 공슬라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그곳의 풍경과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또한 에펠탑과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제리제 거리를 비롯한 유럽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중심으로 벽화를 작업했다.

어둡고 칙칙했던 터널을 벽화를 통해 생동감있고 밝은 장소로 바꾸어 사진 촬영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독서까지 즐길 수 있는 북카페도 추후 추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한대학교만의 특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신한대학교의 벽화 터널은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나간 공간인 만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둡고 음습한 터널 내부를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로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동시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캠퍼스 환경과 이미지를 개선해 2캠퍼스의 벽화 터널이 신한대학교만의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수정 기자〉



성숙한 배우의 모습,
공연예술학과 3학년

노영학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어
연극제에서도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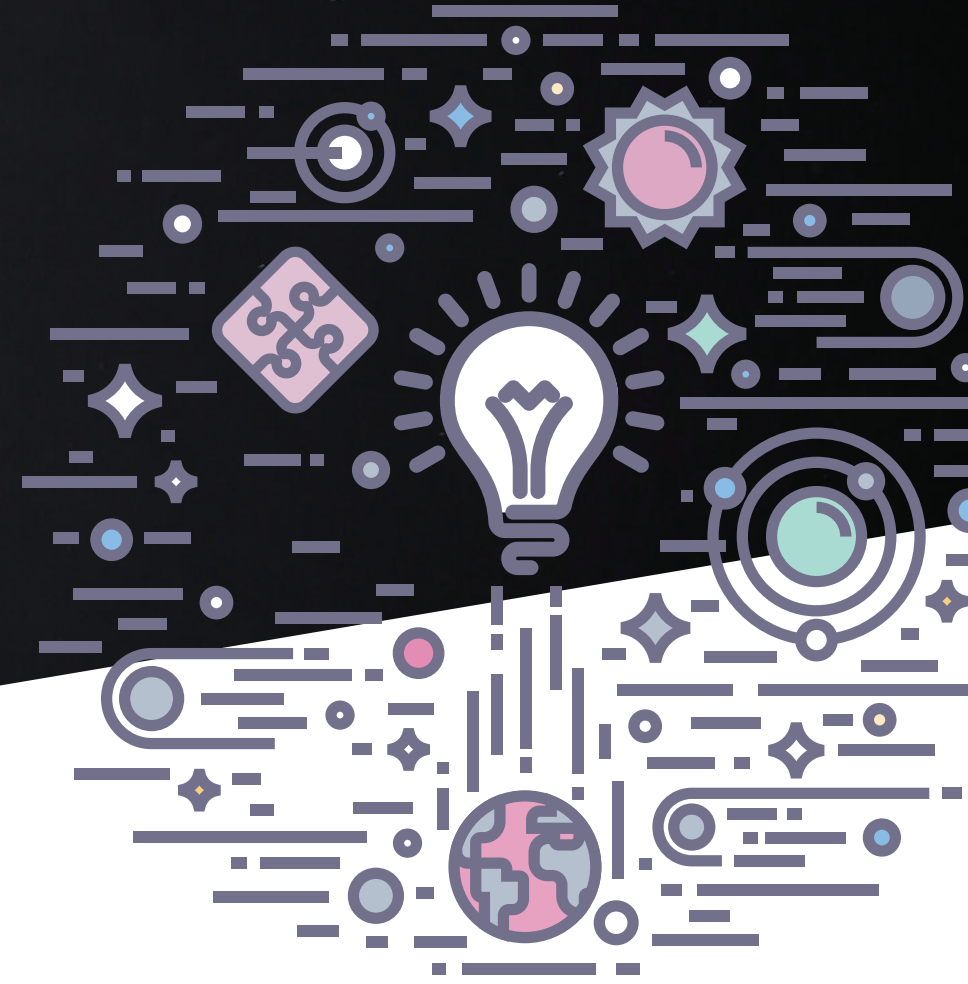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3학년 노영학 학생은 학업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배우활동으로 학교 홍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 2012년에는 KBS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영화 <서부전선>에 출연했다. 노영학 학생은 지난 5월에 종영한 SBS 드라마 <사임당-빛의 일기>에서 극 중 세자(훗날 인종)을 연기하며 젊고 실력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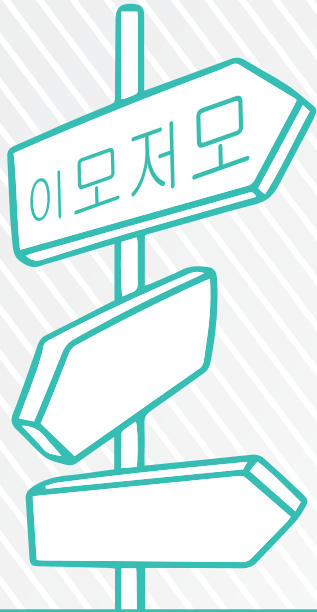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 자신을 통해 학교 홍보에 톡톡히 역할을 해온 노영학 군이 대학연극제에 올라 다시 한 번 학교의 명성에 빛을 더했다. '젊음이어, 기지개를 펴라!' 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제 25회 젊은 연극제'는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가천대, 경희대 등 총 53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대학가에서 촉망받는 연극제이다. 무대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었던 이번 연극제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는 작가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나생문>을 무대에 올렸다. 노영학 학생은 이번 연극제에서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의 기획으로 참여했으며 튼튼한 연기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성숙한 배우의 모습을 보였다. 노영학 학생이 무대에 오른 공연은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 6시 6월 26일 4시에 공연됐다.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2017 학술전자정보 박람회 학술전자정보원 이용방법 교육 및 시연

지난 5월 23일,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2017 학술전자정보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학술전자정보 박람회에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인 전자저널, E-book, E-러닝 등 학술전자정보원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그 이용방법을 교육받거나 시연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전자저널 및 웹DB 교육 뿐 아니라 스탬프 이벤트와 퀴즈 등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승은 수습기자〉



2017학년도 1학기, '신한스터디그룹'의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신한대학교 인재개발 센터가 스스로 공부하고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신한스터디 그룹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는 종합대학 신한대학'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번 1학기에만 45개 그룹이 선정되어 참여한 신한스터디그룹은 갈수록 참여 그룹이 늘어나며 규모를 넓히고 있다. 각 그룹은 목표를 설정하고 12주 동안 토론과 강의를 통해 학습효과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한 뒤 발표력, 협동심, 준비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았다.

인재개발센터는 2017학년도 1학기 동안 진행한 스터디그룹 활동을 토대로 최우수그룹에 사회복지학과 '1급수'팀을 선정했다. 우수그룹은 식품조리과학부의 '식자재', '친구 따라 강남가자', '구'팀 3개 그룹이 뽑혔으며 장려그룹으로는 간호학과 'MITOCHONDRIA', 방사선학과 '사랑의 물리학', IT융합공학과 '아두이노를 JAVA라', '아이보덤'팀과 임상병리학과 '사임당'팀 5개 그룹이 선정되었다.

〈박은영 편집장〉



2017학년도 특수대학원 연합포럼 개최 '100세 시대, 창조적 삶 위한 미래디자인' 주제

신한대학교는 지난 5월 26일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에서 '100세 시대, 창조적 삶을 위한 미래 디자인'을 주제로 2017학년도 특수대학원 연합포럼을 개최했다. 미수다 차문화연구원, 연천동두천신문사 등 7개 단체의 후원 하에 교직원, 지역사회 관련기관, 특수대학원 재학생,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100세 시대의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실천적 방안과, 노인복지, 정신건강, 척추건강, 관광, 주택, 그리고 차 문화 등 다 학문적 접근을 통한 노년층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행복한 노후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박현규 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감사패 전달 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것을 계기로 기부 결정

5월 25일 김병욱 총장은 신한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수여 대상은 박용배 기독교방송국 장로합창단 고문과 하서준(주)북의정부자동차 대표이사로서, 두 이사가 대학발전기금 1,500만원을 학교에 기부한 것(박용배 고문일천만원, 하서준 대표 오백만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두 의원은 대학발전기금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계기로 기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박현규 기자〉



〈신한대학교,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 동두천·연천 지역 최초로 경기광역치매센터와 MOU맺고 현판식

신한대학교가 동두천·연천 지역에서 최초로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신한대학교는 5월 29일 동두천 캠퍼스에서 경기광역치매센터와 산학협력협약을 맺고 치매극복 선도대학 현판식을 가졌다. 차후 치매극복선도대학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한편, 신한대는 간호대학 양승희 학장이 치매극복선도대학 운영책임을 맡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치게 될 계획이다.

〈최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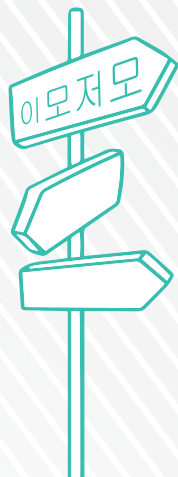


신한대,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 수료식 현장실습을 통한 해외봉사 준비

해외봉사단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한대학교는 6월 19일 '115기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과정 수료식'을 의정부캠퍼스와 월드프렌즈 서울교육원에서 가졌다. 2017년 3차를 맞은 이번 교육은 44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7일간 12개 직종별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을 이수한 코이카봉사단원들은 7월부터 우즈베키스탄, 네팔, 르완다 등 16개국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는 2016년 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교육사업인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대는 올해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반봉사단 6회, 드림봉사단 1회의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은 수습기자〉



치위생학과 학생논문 7편 학회지에 게재 관심주제 별 조별로 나눠 집중지도 연구역량 크게 높여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연구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실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학과측은 한국치위생학회지 2017년도 2호(4월 발행)에 학생논문 3편이 게재되었으며, 3호(6월 발행)에도 4편의 게재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6편이 심사 중에 있어, 게재될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과장 이경희 교수는 "이러한 성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된 결과"라며 이번 성과가 연구문화 조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치위생학과는 앞으로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갖춰 취약계층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박현규 기자〉



신한대학교와 동두천·연천 신문 산학협력협약 체결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역량강화가 중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선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한대학교는 이에 발맞춰 지난 5월 25일 연천군 소재 동두천·연천 신문과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학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수의 연구를 위한 현장 활동을 돕기로 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신한대학교는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학교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알리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결식은 본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으며, 신한대학교 장용운 대외협력처장, 한창식 특수대학원장과 박효철 부원장, 김옥자 교학부장이 참석했다. 동두천·연천신문에서는 백호연 대표, 신흥학원에서는 김관목 이사가 참석했다.

〈박은영 편집장〉



국제어학과 4학년 학생 4명 '전국 대학생 중국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전원 합격

2017년 3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한 '한국 전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본교 국제어학과 4학년 학생인 고여경, 김요한, 전소연, 손훈 학생이 최종 합격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북경 소재의 북경어언대학교 (예정)에서 수학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50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교육비, 기숙사비, 의료보험비와 체재비를 전액 제공하고, 연수생들은 왕복 항공료와 여권 및 비자발급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7월 12일에 '사전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세한 교육내용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은영 편집장〉



축제를 통한 금연 캠페인 연금팀의 "담배연기 없는 세상 만들기"

'오늘부터 금연!' 보건복지부 금연 서포터즈 11기 연금팀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준 활동 주제로 금연정책을 홍보하며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연금팀 팀장 이예지 학생과 팀원 윤영수 학생, 최휘은 학생, 한다솔 학생은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소속으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금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금팀은 도담제 기간인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금연팔찌나누기, 퀴즈게임, 금연 이행시 등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3개 부스 중 자발적인 대외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된 부스는 연금팀이 유일했으며,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고 올바른 금연방법과 중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

〈이승은 기자〉

대학발전기금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이청재	치기공학과	(주)다일
강수철	학생지원팀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주)북의정부자동차
강정원	유아교육과	송기상	국제교류팀	임효진	대외협력팀	(주)여명종합건설
강제이	국제교류팀	송운홍	임상병리학과	장인봉	공법행정학과	(주)윤민디자인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장경순	사회복지학과	(주)진학어플라이
권영길	교양학부	신용철	임상병리학과	장형성	자동차공학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전범주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지일
김경희	유아교육과	오병철	공간디자인전공	전영주	홍보팀	김찬호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오이균	공법행정학과	전현주	국제어학과	동진고속관광(주)
김남용	공법행정학과	오홍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박용배
김동섭	호텔조리전공	우두한	시설지원팀	정은경	교육지원팀	송내교회
김문규	학술정보팀	유병엽	대학본부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의정축산식당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윤상곤	교육총괄팀	조상민	시설지원팀	전원식당
김봉건	입학사정팀	윤대빈	유아교육과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조광덴탈주식회사
김상욱	대외협력팀	윤희숙	임상병리학과	조성윤	시설지원팀	주식회사국민은행
김상현	방사선학과	이강석	시설지원팀	조우택	학술정보팀	(주)신아이엔지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진선범	시설지원팀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주)
김옥희	교양학부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한불에너지관리(주)
김용섭	교목실	이기찬	교양학부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홍은
김종만	교육총괄팀	이남전	교학팀	최에스터	뷰티헬스전공	황소화로구이
김주현	입학총괄팀	이대성	정보화팀	최지연	학생상담팀	김우평뿌리깊은치과
김지명	식품영양전공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진영	식품영양전공	드림통장작구이
김창희	학생상담팀	이동원	학생지원팀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수요예배
김현숙	수업학적팀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하성용	자동차공학과	이춘식
김호성	방사선학과	이민선	간호학과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이한규
박주원	유아교육과	이민희	홍보팀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조현곤
박준수	기획팀	이보고	국제어학과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평생교육원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이상록	전자공학전공	홍승예	입학사정팀	허윤
박호균	컴퓨터공학전공	이승영	산학지원팀	홍승희	식품영양전공	생활문화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황경숙	치기공학과	지식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12기
배시애	교양학부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배영금	국제어학과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황보상원	공법행정학과	
변미현	홍보팀	이종탁	언론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변희진	산업디자인전공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자녀의 성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인적사항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주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주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결제일	□ 일		결제은행	은행	
		결제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의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7.07 / 191호

편집후기

박은영 편집장

바쁜 일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191호를 발간을 하려니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따라와 준 기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중강을 하지만 신한대학교에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다음 호에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민지 기자

올해 두 번째 신한특독을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뿌듯하다. 기자들 모두가 땀뻑한 일정 덕에 바쁘게 준비하느라 좀 아쉽긴 하지만 다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힘내서 다음 신한특독도 별탈없이 무사히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김수정 기자

1학기도 어느새 다 끝나가고, 내가 신문에 들어와 처음 맞는 여름이 되었다. 워든 서툴렀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제법 기사 작성이나 취재에 있어서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박미소 기자

항상 이맘때쯤 원고 마감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 시험 준비 과제 마감 기사 마감까지. 이런 바쁜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놓는 것 또한 학생의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 같다.

박현규 기자

나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191호.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다른 기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특히 부족한 복학생을 이끌어준 박은영 편집장에게 감사한다. 막 들어와 그리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보인 최수민 및 이승은 두 수습기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그리 예스럽지 않은 성현은 '좋은 글은 쓸때도 재밌는 글'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내가 쓸 때는 즐거웠다. 독자들도 읽으며 즐거움을 바랄 뿐이다.

오소영 기자

여러 신한특독을 거쳤지만 늘 이때가 가장 힘든 기간인 것 같다. 교내외 행사도 많고 과제와 시험까지 한 번에 몰아친다. 바쁜 와중에 모든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수고했다는 말 편집후기를 빌어 꼭 전하고 싶다.

이민영 기자

개강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학기 마지막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 학기에 기사를 맡게 된다면 이번 호와 좀 다른 색다른 기사를 한 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이번 호보다 더 나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승은 수습기자

191호 발간을 위해 직접 취재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스스로 신문사 기자로서의 뿌듯함과 열정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 192호를 발간할 때는 이번 아쉬움을 교훈삼아 인터뷰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수민 수습기자

191호를 준비하면서 처음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와 직접 컨택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나간 것 같다. 또한 직접 촬영을 하면서 대상을 잡는 구도를 스스로 터득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신한특독을 발간하면서 여러 기술을 익히게 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 글쓰는 실력을 쌓아 다음에는 더 발전된 신한특독을 발행하고 싶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